

원가 폭등에 흔들린 전남 석화산업 대비될까

중동전쟁 장기화...정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기부, 석유화학 등 피해 기업에 55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문턱 낮춰...“지속적 정책 지원을”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에 추가 자금 지원을 나서면서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도 한숨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지원이 석유화학 산업과 맞닿은 분야에 집중되면서 약자에 적격탄을 맞았던 여수국가산단이 회복 흐름을 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

산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최근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

로 확대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이다. 중동 지역과의 수출입 의존도가 높거나 석유화학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기업들의 체감도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이 집중돼 있다. 대규모 정유시설과 화학 공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중간재와 소재를 생산하는 구조여서, 원유 가격 변동이나 공급망 충격이 곧바로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 산업용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가 부담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동시

에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환율 변동과 물류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버티는 것 자체가 경영의 핵심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체감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여수의 한 화학소재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 가격이 바로 뛰는데, 납품 단가는 쉽게 올리지 못한다”며 “운전자금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번 같은 긴급 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적자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구조 개선이나 수익성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επα화 회복

이 함께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버팀목’ 역할을 넘어 산업 전반의 회복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남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와 에너지 시장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서 문턱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거나 매출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신시

장진출지원자금을 통해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돕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재창업자금도 확대된다. 기존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지역의 경우 AI 중심 산업 육성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스타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금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석유화학 등 공급망에 포함된 지역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대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실행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전력 신사업, 실행력 올린다...플랫폼 본격 가동

산·학·연·관 포럼 출범...기후부·한전 등 참여

정부와 전력업계, 학계, 연구계가 한데 모여 에너지 신기술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력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기존 논의 중심 포럼의 한계를 넘어 실제 사업화와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전력산업 혁신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최근 대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실행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주요 인사와 전력거래

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송변전 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 VPP, AMI,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시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의 핵심은 향후 5개월간 단기 집중 운영을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연결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포럼과 차

별됐다.

각 포럼은 월 2~3회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지연된 에너지 신사업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한전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및 혁신기업 기술이전까지 전 과정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고, 한전은 실행 플랫폼 역할을 맡아 기술과 시장 연결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산·학·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신기술이 실제 시장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제철소, 품질 예지 시스템 첫 구축

'PIMS-Q' 개발...실시간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해 품질 결함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며 생산성 혁신에 나섰다.

광양제철소는 품질 설비 이상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PIMS-Q (Posco Intelligent Maintenance System-Quality)'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은 사업장 최초로 도입된 품질 설비 예지 시스템으로,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설비 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IMS-Q는 제품의 폭과 두께를 비롯해 온도, 유량, 압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설비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품질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 안정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열연제품의 적정 냉각 온도 유지와 슬라브 과열 방지를 위한 설비 배어링 온도 감시 등 핵심 공정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베스트장례문화원
BEST FUNERAL CULTURAL CENTER

4월1일
BEST OPEN

광주공항 맞은편에
'베스트장례문화원'이 첫 문을 엽니다.

슬픔을 넘어선 깊은 위로,
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장례 문화가 시작됩니다.

'베스트(BEST)'는 단순한 최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걸은 삶의 마지막 길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존중'이며,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성'입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추억하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서, 가장 편안한 시설과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로 광주의 새로운 장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우산동)
대표전화: 062-454-1000

베스트장례문화원
BEST FUNERAL CULTURAL CENTE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대표 캐릭터 발굴

'전남픽' 창작자 모집...상품화·콘텐츠 확장에 중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도의 매력을 담은 대표 캐릭터 발굴에 나선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년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전남픽(JPICK!)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캐릭터 IP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픽(JPICK!)'은 전남의 매력을 담아 대중에게 사랑받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발굴한다는 의미를 담

고 있다.

특히 단순 디자인을 넘어 상품화와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IP 발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공모 분야는 2D 기반 캐릭터 IP 디자인이며, 참가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학생 및 일반인과 전남 소재 대학 재·휴학생으로, 연령 및 팀 구성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20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또 모든 수상자에게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



이 함께 수여된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이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